

확대적용되는 천적농약

유 기재배, 저농약농산물 재배, 종합적병해충 관리(IPM)등에서 천적농약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내시장은 아직 연간 1억엔 정도이나 제품은 20가지 정도가 되고, 적용작물도 확대되고 있다. 회사는 기존약제의 적용작물 확대나 신제(新劑)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젠타저팬은 '97년부터 천적농약을 시장에 투입, 연간 매출고는 1,000만엔 이상이다. 금후, 「칠레 이리응애」제를 비롯한 다양한 천적의 적용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젠타저팬은 “IPM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천적농약은 중요한 자재”로서 취급되고 있다. “국내생산체제를 정비하여 천적농약의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캐츠 애그리시스템즈는 작년 「온실가루이좀벌레」제를 개발했다. 현재 「이사에아 좀벌레제」 등을 이바라기현 도리데시의 신젠타농업센터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피망과 가지를 적용작물로 한 「대륙에 꽃 노린재」제를 판매하는 스미도모화학은 “가격, 기술보급 등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하면서도 농가 수요가 높은 작물에 대한 적용확대나 신제품의 개발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공 : 일본농업신문

돈분뇨 저비용 처리시스템 개발

일 본 군마현 축산시험장은 돼지의 분뇨를 땅속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간단하게 정화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약 1m 깊이의 토양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비의 일반 정화조 처리의 1/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제로가 되고, 환경대책이 요구되는 양돈 농가에 있어서는 희소식이라고 할수있다.

토양조는 지면을 1m정도 파고 바닥과 측면에 방수시트를 붙인다. 바닥에는 배수용으로 작은 구멍이 뚫린 집수관을 설치하고 바닥전체에 10cm가량 돌을 깔후 한냉사 등을 덮고서 흙을 넣는다. 여기에 가축분뇨를 살수하여 토양중의 미생물이 분해되고 정화되는 구조이다. 분뇨는 살수(散水)전에

탱크에 1일간 머물게 하고 고힘물을 침전시킨 다음 집수관으로 토양조를 흐르게 한다.

정화후에는 토양조 바닥에 있는 집수관에서 밖으로 흐르게 한다. 분뇨는 BOD치가 3000ppm까지 오염이 되면 1㎡당 1일15ℓ 살수할 수 있다. 정화능력은 5년정도 유지된다고 한다. 처리경비는 모든 50두 규모의 일반적인 정화조 처리시설은 약 2,000만엔정도 소요되나 토양조 처리에서는 약 470만엔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